

41. 성소정결과 바벨론과 남은 자손

2012. 10. 7.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2300주야와 성소정결이 무엇을 뜻하는지 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과 남은 자손에 대하여 말씀 드렸는데,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피고자 합니다.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렘16:14,15]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15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리라.

[렘23:7,8]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8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1. 목사님, 이제 봉독한 말씀은 거의 똑 같은 내용이군요. 왜 두 번씩이나 이 말씀을 계시하셨을까요?

답: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이 두 번 있을 것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이르게 되면 다시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고 북방 땅 쫓겨났던 나라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를 하되 처음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중에 북방 땅과 쫓겨났던 땅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완성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이 바벨론과 남은 자손에 대한 것인데, 이 말씀과 우리의 제목이 관계가 있습니까?

답: 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이 말씀은 구원의 단일성이 아니고 이중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되거든요. 이중성이라는 표현이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역사적 구원사건은 한 번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3. 목사님 말씀은 점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역사적 구원사건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답: 저의 표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사업은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은 역사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이 속해 있는 역사적 현상이 있습니다.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 세대의 역사적 사건과 또 그 전 세대의 역사적 사건들 속에 구원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말하면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세속과 타협하고 교권이 정권이 되어 구원의 길이 정치적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경지에 이르면 이미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순수한 복음의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와 신앙의 옷을 입은 세상 권세인데 순전한 세상 권세보다 훨씬 무서운 힘을 휘두르게 됩니다. 사람의 신앙심은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세상 정치적 권세와 종교적 권세가 합치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지요. 정치적 충성이 곧 신앙적이며 종교적인 충성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정치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신앙에 충실한 것이라고 믿게 되지요. 지금 이슬람 교인들의 자폭 테러를 보십시오. 그것을 그들의 신앙행위로 여깁니다. 들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죽는 것을 순교로 여긴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들이 종교와 신앙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만행을 들으면서 중세 기독교의 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암흑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지요. 그런 신조와 교리 안에 구원의 진정한 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 아,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은 종교개혁에 대한 것입니까?

답: 아, 물론 종교개혁 사건도 포함되어야 하겠지요. 종교개혁 당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 종교가 가르치는 교리와 신조는 성경의 구원의 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이 고안한 교리와 신조였으니까요. 아직도 교권로마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성경보다 교권을 상위에 두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교권이 마음 내키는 대로 전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발상으로 변화시키지요. 그것이 바로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겸손한 하나님이 좋으면 개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힘이 부쳐서 개혁 운동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혼자서라도 성경대로 개혁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도 단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의 예언을 살피면 지속적으로 개혁이 진행되다가 2300주야 끝에 성소정결을 통하여 진리의 개혁이 성경적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개혁된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호소하게 되지요.

5. 목사님 말씀의 뜻은 성소정결로 개혁된 바른 진리를 따라 개혁되지 않은 혼잡된 교리에서 나와야 두 번째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까?

답: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사심

으로 맹세하지 않고 북방 땅과 모든 쫓겨났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실을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는데, 그중 대부분의 기간을 종살이로 지냈지요. 하나님께서는 종 노릇 하는 상태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줄 알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졌고 마침내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다니엘은 9장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70년이 차면 해방될 것이라는 약속의 예언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지요. 이 바벨론을 성경은 북방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모든 쫓겨났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로 맹세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에 대한 예언입니다.

6. 남은 자손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는 대로 성소정결로 회복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이 남은 자손이라는 성경 사상은 계시록에 처음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구약성경에 여러 번 나타난 사상입니다. 남은 자라는 말이 맨 먼저 나오는 곳은 노아 홍수 후입니다. 창세기 7:23입니다. 읽어볼까요.

[창7:23]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홍수에 모든 사람이 멸망했습니다. 오직 노아가 예비한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동물들만이 살아 남았습니다. 남은 자손이라는 말은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상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엘리야에 의하여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는 외로운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말합니다. 왕상19:10에 기록되었지요.

[왕상19:10]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말씀에는 아합이 그 아내 이세벨의 충동으로 온 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도록 정치적 권력으로 강제했을 때에 그것을 대항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증거한 선지자로서 홀로 남았다는 것을 나타내지요. 여기서 남은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되었는데,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사상은 발전합니다. 그러나 초점은 성경이 계시한 진리대로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오직 성

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고,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 이외의 사실들을 교리와 신조에 포함시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에 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7. 바벨론이 현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인데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답: 그렇지요. 이미 바벨론의 뜻을 말했지요. 바벨탑에 근원을 두고 있는 이 말은 성경에서는 혼잡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혼잡된 교리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함께 가지고 종교적으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조직을 뜻하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적 모델이 아합 때의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아합은 여호와 선지자를 400명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왕상22:5,6]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와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 보소서 6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사백 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고 할 때에 남쪽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은 후에 행하자고 제안했을 때 400인의 여호와 선지자들을 모으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다 왕의 비위를 맞추는 정치적 선지자들이었지요. 다만 한 사람 미가야만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400인 중의 한 사람인 선지자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참 뜻을 전하는 미가야의 뺨을 치며 외쳤지요. “여호와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왕상 22:23,24을 읽어보면 분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왕상22:23,24]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24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400인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예언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정치와 종교의 혼합 통치자인 아합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릇 전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지요. 혼잡된 신앙사상을 가진 바벨론적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종교와 신앙을 말하면서 성경 외의 사상을 교리와 신조에 포함시켜 가르치고 시행하는 기독교 조직이 바벨론입니다.

8. 목사님 말씀은 일차 종교개혁이 있었으나 바벨론적 사상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바벨론적 교리와 신조를 상당부분 계승한 상태에 머물렀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2300주야 끝에 성소정결 사업으로 상당부분 계승한 바벨론적 교리와 신조를 온전히 성경적으로 개혁하고 정결하게 했다는 뜻인지요?

답: 그렇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일요일을 성일로 성수하고 그날에 예배하고 있는데,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지요. 이것은 7장에서 때와 법을 변경코자한 사실을 이야기 할 때 이미 자세히 말씀을 나눈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권로마가 그렇게 했다고 스스로 주장했지요. 일반 개신교에서는 굳이 교권로마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그렇게 했고 성경에 근거가 있다고 강변하지만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고 증언한 바울의 증언에서 성경에 근거 없는 교리를 시도하는 일이 초기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지요.(살후2:7) 그것이 모두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초기 기독교부터 불법을 시도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에서 그렇게 한 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고전4:6에 단단히 경계했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지 않은 것을 교리와 신조로 가르치면 그것은 바벨론 사상입니다.

9.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가 성경에 없는 사상을 교리와 신조로 가르치고 교인들로 그것을 따라 신앙하게 한 것이, 옛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간 것과 같은 상태라는 말씀입니까?

답: 예,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건과 제도와 사람으로 표상하지요. 바울은 로마5:14에서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들이 교회의 거울이 된다고 했으며(고전10:6)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고전10:11) 또 무엇이든지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했다고 했습니다.(롬15:4) 옛날 이스라엘 역사와 인물들의 행사를 기록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섭리를 가르치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제시한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표상하지요. 계11:8은 영적으로 애굽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했습니다. 좁게 말하면 팔레스틴 지역이지만 넓게 말하면 이 죄의 세상입니다. 이 죄의 세상이 바로 영적으로 애굽이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애굽은 바로 영적 애굽을 표상한 것이지요. 예수를 믿고 죄의 세상에서 나아오면 영적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스테반은 행7:38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거주한 광야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40년 광야생활이 바로 죄의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교회생활 하는 것을 표상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고대 민족적 이스라엘의 역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를 넉넉히 알려주는 예언적 사건들이라는 말입니다.

10. 그렇다면 남북 이스라엘 국가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된 것도 영적 이스라엘의 표상적 사건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답: 당연히 그렇지요. 이스라엘 국민이 우상과 함께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런 사실을 스바냐 선지자는 통렬히 책망합니다. 습1:5에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라고 했습니다. 스바냐는 개혁의 왕 요시야 시대 선지자이고 선한 왕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개혁의 기치를 들고 종교와 신

양 개혁을 하는 당시에 이렇게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혼잡된 교리와 신앙입니다. 그들이 이미 종교에서 있어서 사상이 바벨론이 되어 있었지요.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되어 간 것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된 기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와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 개혁을 했습니다. 바로 파괴되고 없어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회복하는 것이지요. 다음은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도록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가정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일 개혁과 가정 정결 사건은 느헤미야 13장에 있습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의 역사는 느헤미야서로 끝납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이 성소정결로 이루어지는 개혁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지 않고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곳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16:14,15에는 이 사람들의 실상에 대하여 예언하였고, 23:7,8절은 바로 앞 구절인 5,6절을 읽어보면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렘23:5,6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6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다윗의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적 칭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바벨론 포로와 같은 교리와 신조의 혼잡을 가르치고 신앙하는 때에 거기서 인도하여 뉘를 받는 것이 바로 말세에 진정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그 구원을 이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남은 자 대한 저의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다 진정으로 성소정결로 회복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로 생활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11.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적 신앙과 교리의 회복에 대한 성경적 설명이 참 좋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기도하고 이시가 마치도록 하지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경으로 성경의 사실들을 풀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최종적인 구원도 받게 하여주소서. 영적 바벨론의 밤이 아주 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회복된 진리를 따라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복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